

아산 YMCA와 함께한

우리 생애 뜨거웠던 3주

강재영 김은나 조다현 이인호



활동보고

라오스 단원에 대해

지역훈련에 대해

1. 지역과 관계 맺기
2. 마을과 만나기
3. 활동 주체되기
4. 돌아보기

INTRODUCE

러어어응아암



이미 찰떡궁합 라오스 팀

청년셰프 강재영(스물넷)



아산얼짱 김은나(스물둘)



이미 찰떡궁합 라오스 팀

애교담당 조다현(스물하나)



소울 총만 이인호(스물여섯)

지역훈련

1. 지역과 관계 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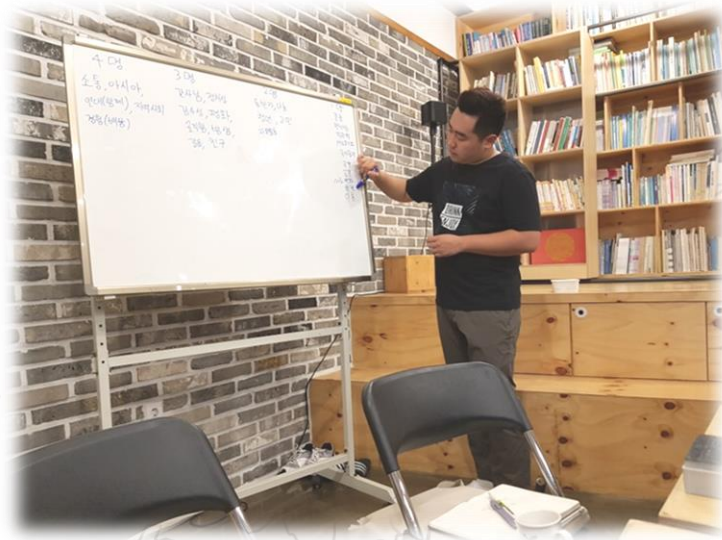




서로 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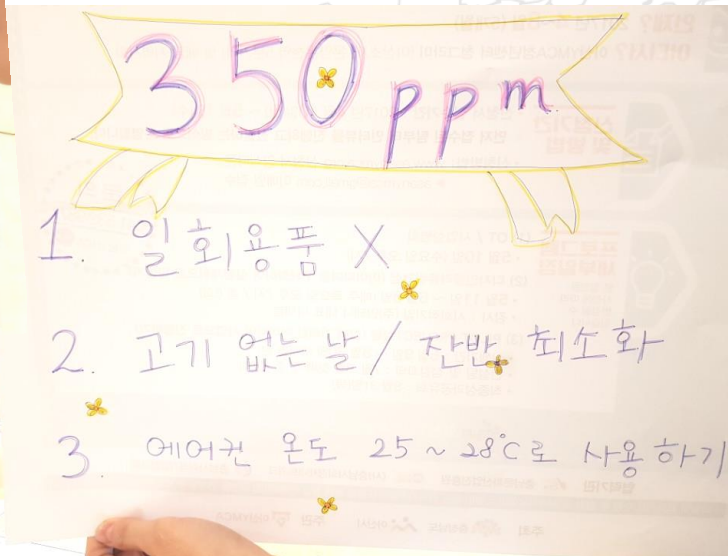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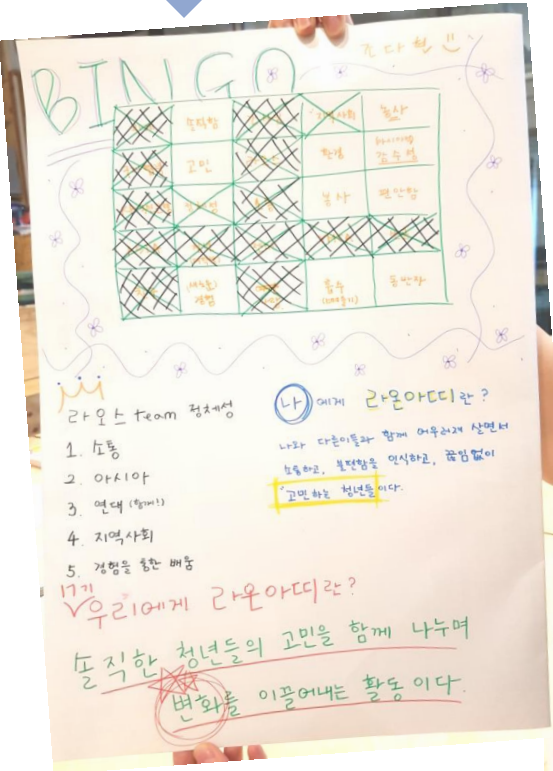


아산 적응 IT



청년 나
변화 고민
민

빙고를 통해 우리만의 '라운아띠'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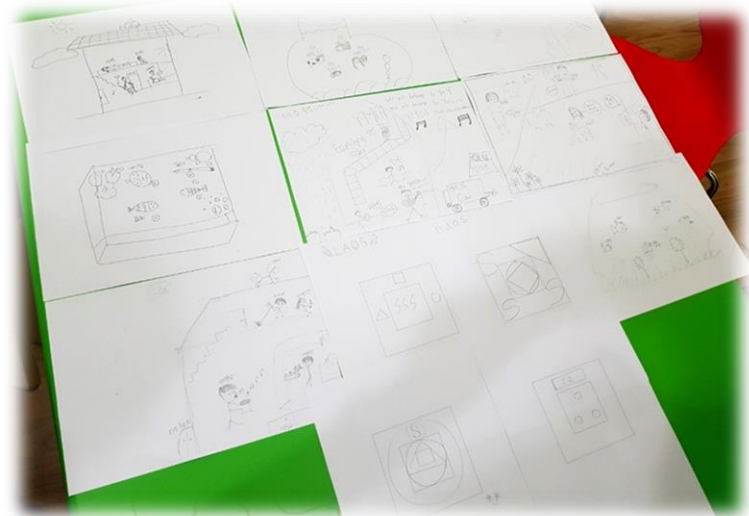


머리 맞대 고민해보며
생활수칙과 350ppm계획도 세웠지만...
어렵다

서로 알아가기



팀빌딩 갈등극복



나도 미처 몰랐다...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서로 배우가기



전래놀이



단풍 & 깨비와 몸을 부대끼며 서로 가까워진 시간~ ♥

서로 배우가기



서로배움



애들아 내가 진짜 좋은 거 알려줄게 (사실 이거 진짜진짜 간단한 건데ㅎ)

아산 알아가기

비 내리던 날, 천 선생님과 함께 떠났던 아산 역사여행!



지역과 소통하기



아산 배우가기



시민연대 & 생활협동조합



자연인 최만정 & 호탕하신 오귀복대장님과의 특별하고도 특별한 만남

라오스 알아보기



라오스 조사 및 영상시청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됐다는.... 이거 실화냐?

지역훈련

2. 마을과 만나기



농촌활동



깻잎따기



드디어 깻잎따기의 고수가 되었다. '고수' 짹으러 감♪

농촌활동



휴식



이젠 쉬는 게 미안할 정도...★

농촌활동



밥 만들기



입에 기름칠하라니까 손에 하고 앉아있네(죄송합니다..><)

농촌활동



어죽 만들기



우리에게 잡힌 잔챙이 세 마리로 얻은 농촌의 정은 너무나도 컸다.

지역훈련

3. 활동 주체되기



배움의 시간



책 소리내어 읽기



힐링은 다른곳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지역아동 만나기



아가야 센터



잊지 못할거야 너희들의 그 미소

지역아동 만나기



반디 지역아동센터



기가 빨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Let's do Campaign



청소년 Y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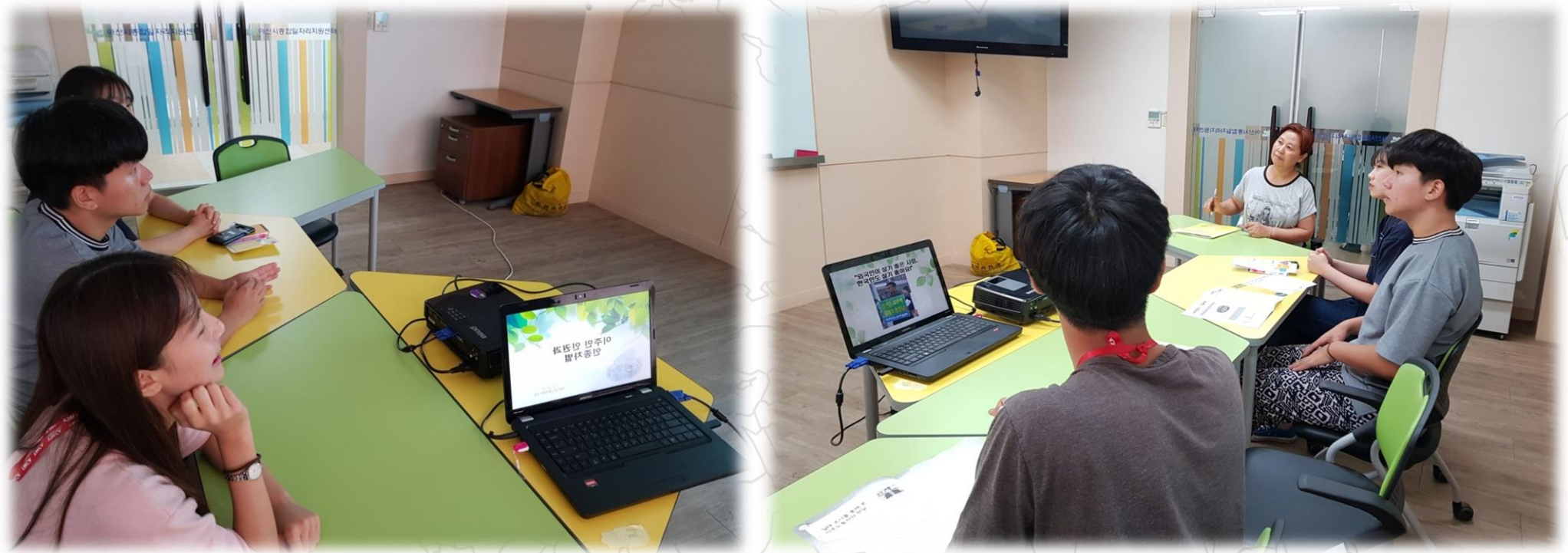


고등학생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시간!!!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의 이해



외노센터 방문



그래서...라오스 사람들에게 한국어 어떻게 가르칠까...?

지역훈련

4. 돌아보기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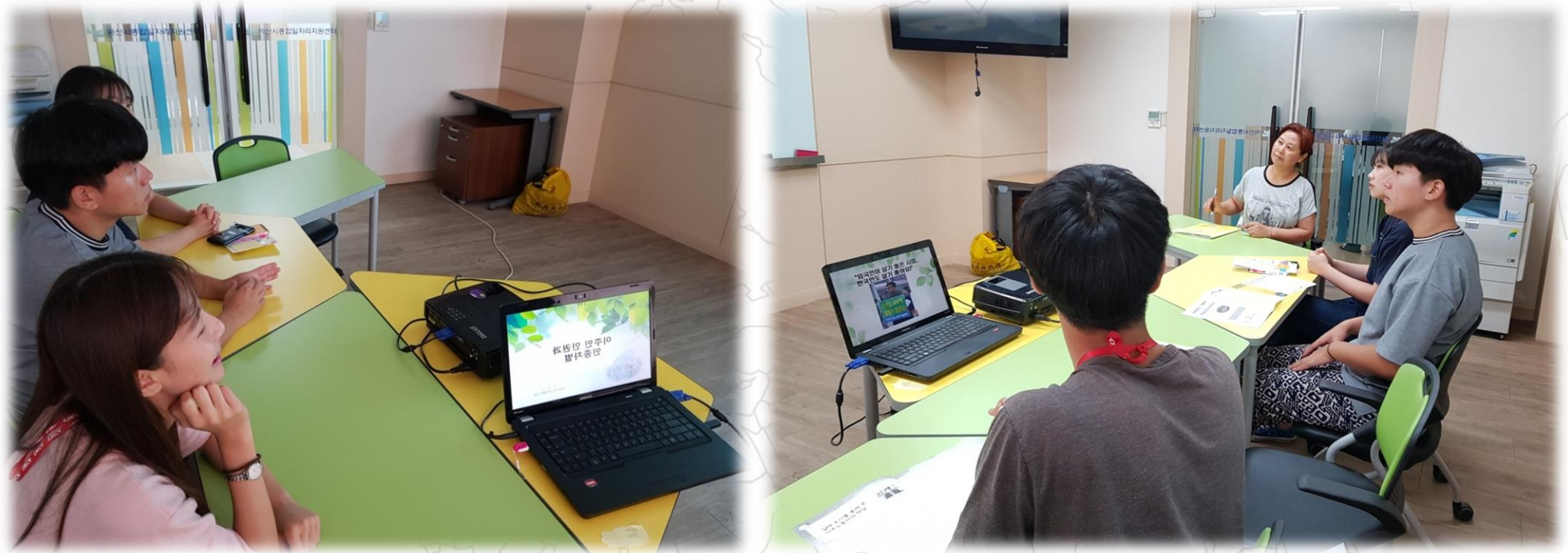


받은 사랑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보답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의 이해



외노센터 방문



그래서...라오스 사람들에게 한국어 어떻게 가르칠까...?

지역훈련이 끝나고...



인호 & 재영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지역사회를 제대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지치고 피로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가치와 감성을 얻어서 매우 기뻐다. 또한 팀원들과 가족같이 가까워진 것은 덤!! 앞으로 라오스에서의 삶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아산 간사님은 최고였다!!!!

아산 지역 사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강의를 들었고, 반디/아가야 아이들과 했던 놀이들 모두가 재미있었다. 농활 가서 했던 낚시와 어죽 만들기도 기억이 남는다. 모두가 하나같이 잊지 못할 추억이고 여기에서 잘 적응한 것처럼 라오스 가서도 잘 적응할 것 같다!!

지역훈련이 끝나고...



다현 & 은나

끊임없이 나에게 대한 질문을 던지고, '왜?', '어떻게?'를 외치게 했던 지역훈련!

낯선 지역과 관계 맺고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며 느꼈던 소중한 감정들과 고민들 잊지 않고 라오스에서 잘 살아남겠습니다. 우리의 큰오빠 강정진간사님, 아산y 식구들, 스승님들... 그리고 못한 동생 챙겨주느라 넘 고생한 우리 팀 고맙고 사랑합니다♥

3주간의 국내훈련을 통해서 라온아띠에 가지고 왔던 고민들이 조금은 해결되기도 했고, 그보다 더 큰 고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늘 무엇인가 고민하는 제 자신이 안쓰럽고 어리석게 느껴졌던 저에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멋진 일인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오스팀 이었습니다